Boléro

- □□

정보

개요
곡명: Boléro, M. 81
작곡가: Maurice Ravel (1875–1937)
작곡 시기: 1928년
장르: 단악장 발레 음악 및 독립 관현악곡
초연: 1928년 11월 22일, Paris Opéra, Walther Straram 지휘
초연 안무 ·무대: Bronislava Nijinska 안무, Alexandre Benois 무대 ·의상 ·시나리오
헌정 ·위촉: Ida Rubinstein
작품 범위: Tempo di Bolero, moderato assai 로 진행되는 340마디의 단악장 관현악 원곡.
IMSLP: Boléro, M.81

Wikipedia: Boléro

Maurice Ravel의 Boléro는 하나의 리듬과 두 개의 선율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현악의 색과 음량을 차례로 바꾸는 단악장 발레 음악이다. 이 글은 1928년 발레를 위해 쓰인 원곡과 오늘날 독립 관현악곡으로 연주되는 전곡을 다룬다. 악보에는 전통적인 악장 구분 대신 하나의 bolero가 표시되어 있으며, 같은 음악 재료가 여러 악기의 독주와 혼합 음색으로 이어진 뒤 마지막 tutti에 이른다.

위촉에서 작곡까지

Ida Rubinstein은 Ravel에게 Isaac Albéniz의 피아노 모음곡 Iberia 가운데 여러 곡을 관현악으로 편곡해 발레로 만들도록 의뢰했다. 그러나 Enrique Fernández Arbós가 이미 해당 곡들의 관현악 편곡 권리를
확보하고 있어 Ravel은 다른 구상을 찾아야 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편곡하는 방안도 생각했지만 결국
완전히 새로운 음악을 쓰기로 했다.

Ravel은 1928년 여름 Saint-Jean-de-Luz에 머물 때 한 손가락으로 선율을 치며 친구 Gustave Samazeuilh 에게 들려주었다 . 그때 그는 이 선율을 발전시키지 않고 여러 번 반복하면서 관현악을 점차 늘려 보겠다는
생각을 설명했다. 이 발상은 작품 전체의 작곡 원리로 남았다. 선율과 리듬의 변화는 제한하고, 악기와 음량, 음색의 조합을 바꾸어 약 15분의 시간을 만든다.

소요 시간

전곡은 보통 약 13~16분이다. IMSLP는 평균 15분, IRCAM은 16분, Los Angeles Philharmonic은 15분, New Jersey Symphony는 13분으로 제시한다. 차이는 특히 Tempo di Bolero, moderato assai 를 어느 속도로 해석하는지와 공연 ·녹음의 조건에 따라 생긴다. 템포가 빨라지면 악기 색이 바뀌며 쌓이는 시간이

짧아지고, 느려지면 같은 리듬을 유지하는 시간이 늘어난다.

편성

IMSLP의 총보 ·파트 목록을 기준으로 한 원전 편성은 다음과 같다.

목관악기: Piccolo, Flute 2, Oboe 2(제 2는 Oboe d'amore 겸), English horn, E♭ clarinet,
Clarinet 2 in B♭, Bass clarinet, Bassoon 2, Contrabassoon
색소폰: Sopranino saxophone in F, Soprano saxophone in B♭(Tenor saxophone 겸)
금관악기: Horn 4, Piccolo trumpet in D, Trumpet 3, Trombone 3, Tuba
타악기: Timpani 3, Snare drum 2, Bass drum, Cymbals, Tam-tam
그 밖의 악기: Celesta, Harp, Strings

E♭ clarinet은 한 clarinet 연주자가 겸할 수 있어 IMSLP는 clarinet 연주자 세 명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색소폰도 보통 두 명이 나누어 맡는다. 한 연주자가 sopranino와 soprano 부분을, 다른 연주자가 tenor 부분을 맡는 방식이다. Sopranino saxophone in F는 현대 공연에서 실제 악기를 구하기 어려워 다른 saxophone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있다. LA Phil과 New Jersey Symphony의 안내는 이 편성을 공연 관행에
맞게 간략화해 적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Ravel의 원전 표기를 먼저 제시한다.

출판 정보와 자료

초판은 1929년 Paris의 Durand에서 출판되었다 . 같은 해 Ravel은 Boléro를 piano four hands용으로도
편곡했지만 , 이 글의 대상은 발레와 연주회에서 쓰이는 관현악 원곡이다. IRCAM은 작품의 위촉자와 헌정자를 Ida Rubinstein으로 기록하고, 관현악을 위한 발레라는 장르를 명시한다.

초연은 1928년 11월 22일 Paris Opéra에서 열렸다. Rubinstein이 이끄는 무용단의 발레로, Nijinska가 안무를 맡고 Benois가 무대 ·의상 ·시나리오를 담당했으며 Straram이 Opéra Orchestra를 지휘했다. IRCAM은 같은 날짜에 Orchestre Lamoureux와 Ravel 지휘로 열린 concert creation도 별도로 기록한다. 이 구분은 발레로 처음 무대에 오른 작품과, 무용 없이 관현악만으로 연주되는 형태가 초기부터 함께 존재했음을 보여 준다.

단악장 구조

고정된 리듬

작품은 snare drum이 제시하는 bolero 리듬에서 출발한다. 낮은 현악의 pizzicato와 저음부가 리듬의 바탕을 지탱하고, 그 위에 첫 선율이 놓인다. 리듬은 거의 끝까지 같은 패턴을 유지하며, 선율을 새롭게
발전시키기보다 매번 다른 악기가 같은 재료를 전달하도록 만든다.

이 리듬은 관현악이 커지는 동안에도 pulse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음량과 음색의 변화를 선율의 변화와
구별하게 한다. 같은 박동이 flute의 작은 소리와 마지막 전 관현악의 큰 소리를 이어 주기 때문에, 시작과 끝은 서로 다른 크기를 가지면서도 하나의 연속으로 들린다.

두 선율의 반복

두 개의 긴 선율이 번갈아 제시된다. 첫 선율은 flute에서 시작하며 비교적 온음계적인 윤곽을 보인다. 두 번째 선율은 다른 음정 진행과 당김음으로 색을 바꾸고, 다시 첫 선율로 돌아간다. Ravel은 이 두 선율을 반복하는 동안 기본 리듬과 화성의 움직임을 크게 흔들지 않는다.

따라서 작품의 긴장은 선율이 어디로 발전하는지보다 다음 반복에서 어느 악기가 선율을 맡는지에 놓인다. Flute와 clarinet이 만든 가벼운 시작은 bassoon, E♭ clarinet, Oboe d'amore, saxophone의 차례를 거치며 다른 표정을 얻는다. 후반에는 여러 악기가 함께 선율을 연주해, 독주로 들리던 재료가 집단적인 음향으로 바뀐다.

음량과 관현악의 누적

LA Phil은 작품이 pp에서 ff까지 점차 커지는 하나의 긴 crescendo라고 설명한다. 이 상승은 악기의 추가와 음역 ·음색 배치를 함께 조절해 만든다. Ravel은 같은 선율을 악기마다 다른 음역과 음색으로 배치하고, 독주와 겹침의 비율을 조절하면서 밀도를 높인다.

초반에는 한 악기가 선율을 맡고 나머지 악기는 리듬과 화성의 틀을 지킨다. 중반에는 두 선율의 교대가 새로운 색소폰과 목관의 음색을 통과한다. 후반에는 목관과 금관, 현악, 타악기가 더 두꺼운 조합을 이루며, snare drum의 고정 박동이 큰 음향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마지막 전환에서는 오래 유지된 균형이 깨지고 전 관현악이 종결을 만든다.

진행에 따른 관현악 변화

도입: flute와 리듬의 기준
도입에서는 snare drum이 작은 음량으로 리듬을 시작하고, 낮은 현악과 저음부가 단순한 바닥을 놓는다. Flute가 첫 선율을 혼자 맡으면서 선율의 윤곽이 드러난다. 이 첫 제시는 작품이 어떤 재료를 얼마나 오래 반복할지 알려 주는 동시에, 이후의 변화가 새로운 선율이 아니라 음색과 음량의 변화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초기 목관: clarinet과 bassoon
Clarinet과 Bassoon은 같은 선율을 받아 서로 다른 음역과 발음으로 바꾼다. Bassoon의 높은 음역은 악기의 일상적인 저음 이미지와 다른 색을 만들고, E♭ clarinet은 더 날카롭고 가벼운 윤곽을 부여한다. Ravel은 하나의 선율을 표준적인 악기군에만 맡기지 않고, 각 악기가 지닌 약간의 낯섦까지 편성의 일부로 활용한다.

Oboe d'amore가 들어오면 음색은 다시 부드럽고 둥글게 변한다. 이 대목은 스페인 춤의 제목을 직접
묘사하기보다 , 고정된 리듬 위에서 악기의 성격이 차례로 바뀌는 관현악 실험으로 이해된다.

색소폰과 혼합 음색

Sopranino, Soprano, Tenor saxophone은 관현악 안에 독특한 중간 색을 더한다. 원전은 Sopranino
saxophone in F를 요구하지만 , 실제 공연에서는 악기 확보와 연주 관행에 따라 다른 saxophone이
사용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특정 대체 악기를 규칙처럼 고정하는 데 있지 않고, saxophone이 목관과 금관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환원되지 않는 색으로 선율을 바꾼다는 점이다.

중반 이후에는 Horn, Celesta, Piccolo, Harp와 여러 목관이 선율 또는 반주를 겹친다. 한 악기의 독주가
악기군의 합성 음색으로 옮겨 가면서, 반복은 악기군의 합성 음색으로 계속 이동한다. 음높이의 큰 변화가
적어도 소리의 결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곡의 시간이 음색의 순서로 구분된다.

금관과 종결

후반에는 Trumpet과 Piccolo trumpet, Trombone, Horn이 선율과 화성의 무게를 높인다. Strings와 목관이
이미 쌓은 음향 위에 금관이 합류하면, 같은 리듬의 압력이 더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Timpani와 여러 타악기는
이 상승을 지지하지만 , snare drum의 반복이 작품의 기준을 계속 유지한다.

마지막에는 전 관현악이 모여 오랫동안 고정되어 있던 균형을 흔든다. LA Phil과 New Jersey Symphony는 이
부분을 점층적 crescendo 뒤의 오케스트라 절정으로 설명한다. 여기서는 악보 이미지를 독자적으로 판독해
세부 화성을 덧붙이지 않고, 기관 해설이 확인하는 고정 리듬 ·관현악 누적 ·마지막 tutti의 관계만 서술한다.

발레와 연주회용 작품
초연 프로그램의 시나리오는 Spain의 tavern을 무대로 삼는다. 천장에 매달린 brass lamp 아래에서
사람들이 춤추고, 여성 무용수가 긴 table 위로 올라가며 발걸음과 주변의 환호가 점점 커진다. 이 설정에서
고정 리듬은 춤의 축을 만들고, 관현악의 crescendo는 무용수와 군중의 에너지가 함께 올라가는 시간으로
기능한다.

Ravel은 이 무대와 다른 공장 배경의 구상도 선호했다. LA Phil은 그 구상이 작품의 기계적인 리듬과
연결된다고 설명한다. 두 무대 구상은 하나의 음악에 서로 다른 시각적 해석이 가능했음을 보여 준다. tavern
의 춤은 스페인풍 발레의 표면을 강조하고, 공장은 반복과 점층을 산업적인 움직임으로 읽게 한다.

오늘날 Boléro는 발레보다 관현악 독립곡으로 훨씬 자주 연주된다. 무용이 사라진 자리에서는 악기의 교대와
음량의 증가가 작품의 진행을 직접 보여 준다. 그래서 연주회용 형태는 발레의 원래 장면을 삭제한 축약판이
아니라, Ravel이 설계한 관현악 변화 자체를 전면에 놓는 공연 형태다.

연주 자료와 tempo 논쟁
Ravel은 작품을 구상할 때 발전을 최소화하고 관현악을 점차 늘리겠다는 계획을 직접 말했다. New Jersey Symphony의 프로그램 노트는 그가 이 곡을 “seventeen minutes of orchestra without any music”라고 자조적으로 불렀으며, 발명보다 계획과 실행 방식에 의미를 두었다고 전한다. 이 발언은 Ravel이 재료의
제한과 관현악 설계를 의식하고 있었다는 직접 자료로 읽힌다.

tempo에 관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자료는 Toscanini와 Ravel의 충돌이다. New Jersey Symphony는 음악학자 Roger Nichols에게 전해진 Alexandre Tansman의 회고를 통해, Toscanini가 Ravel보다 빠르게 연주했고 Ravel이 “It’s too fast”라고 말했다고 기록한다. 이는 Tansman이 전한 2차 자료이므로 실제
대화의 모든 세부를 확정하는 직접 기록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다만 Ravel이 생각한 긴 crescendo의 시간과 Toscanini가 선택한 빠른 진행이 작품의 인상을 달리 만들었다는 연주사적 사례로는 의미가 있다.

이 자료는 tempo 선택이 악기 교대와 마지막 절정의 도달 시점을 바꾼다는 점을 보여 준다. 빠른 연주는 악기 교대가 더 촘촘하게 이어지고 마지막 절정에 일찍 도달한다. 느린 연주는 snare drum의 pulse와 음색 변화가 더 오랫동안 누적된다. Ravel이 지정한 moderato와 지속적인 pulse는 악기 배치와 crescendo를 하나의 과정으로 결합하는 기반이다.

레코딩과 수용
Ravel이 직접 지휘한 1930년 녹음은 작곡가가 남긴 연주 기록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이 녹음은 Ravel이 작품의 tempo와 음향을 남긴 역사적 기록이며, 후대 녹음과 비교할 기준 자료다. 이후의 녹음은 같은 선율을 얼마나 매끄럽게 연결하는지 , saxophone과 목관의 색을 어떻게 배치하는지 , 마지막 tutti까지 pulse 를 어떻게 유지하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윤곽을 만든다.

1928년 발레 초연 뒤 작품은 빠르게 연주회 레퍼토리로 이동했다. IRCAM은 Ravel 지휘의 Orchestre Lamoureux가 연주한 concert creation을 발레 초연과 따로 기록한다. 초기부터 무용과 관현악 연주가
병존했으며 , 오늘날에는 무대 없이 연주되는 형태가 표준이 되었다. 작품의 인지도는 이 단순한 재료에서
비롯되지만 , 지속적인 수용은 그 재료를 수백 마디 동안 지탱하는 관현악 설계와 연주 조건에 달려 있다.

주요 자료

Boléro (1928) (IRCAM Ressources). 발레 장르, Durand 출판, Ida Rubinstein 위촉 ·헌정, 16분,
발레 초연과 concert creation의 구분을 확인했다.

Boléro (Los Angeles Philharmonic). 15분, 공연 편성, Albéniz 프로젝트와 Ravel의 작곡 구상,
단일 선율 ·고정 리듬 ·점층적 다이내믹, 공장 배경을 확인했다.

Program Notes: Ravel’s Boléro (New Jersey Symphony). 13분, 상세 편성, Tansman이 전한 Ravel–Toscanini tempo 일화, Ravel의 자기 설명과 무용 맥락을 확인했다.